

데스크시각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사람의 생각은 단어(單語)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단어를 '조합'해 글과 문장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 단어에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각 단어의 조합 방법에 동의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글과 단어는 마음속에 어떤 개념, 이미지,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 스위스 언어학자인 소쉬르는 '작곡이라는 단어를 보면 '음악에서 멜로디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했다. 모든 단어에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심상 또는 감정'이 배어 있는 셈이다.

지방의 일꾼을 뽑는 6·13지방 선거가 오는 투표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선거 기간 중 다채로운 '말의 향연'이 펼쳐졌지만,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어도 기억에 남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

새로운 시작

다. 모든 후보의 모든 말과 그들이 사용한 단어들에 비속했기 때문일 터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적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간곡히' '간절하게' 라는 단어다. 아마도 그 단어에 질게 스며든 '사회적 감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 표 부탁하는 간절한 심경

각 정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던 4월, 한 후보가 보내 온 휴대전화 문자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로 시작됐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선 여론 조사에서 자신을 꼭 선택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억된다. "정말,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표를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며 머리를 숙이는 걸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잔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후보들이 '간곡히' '간절하게' 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잔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열여지긴 했지만, 수십여 년간 사용해 오던 '간곡' '간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간곡하다' '간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불

잡힌 자기 새끼를 쫓아 울며부며 강 언덕을 내달렸다는 어미 원숭이가 절로 떠오른다.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국 진나라 병사에게 붙잡힌 새끼를 되찾기 위해 100리(40km)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강폭이 좁아지는 협곡에서 마침내 배를 향해 몸을 날렸지만 배에 이르기도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다.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차가자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단장지애(斷腸之哀)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인데, 오직 자식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100리를 달리는 '과정'에서 원숭이를 지배했던 감정이 바로 그 '간절함'이 아닐까 싶다. 선사로부터 받은 화두를 깨뜨리기 위해 한 평 도굴에 스스로를 가둔 채 가슴속 마귀와 대결했던 선승들의 마음가짐도 '대장부로서 평생의 일(得道)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간절함일 터다. 간절한 이야기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인 셈이다.

문제는 '간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일의 진행 과정에서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일 뿐, 목표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사라지거나 잊히고 만다는 점이다.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며 온갖 각

오와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던 호르몬 분비가 잦아들면 또다시 안일했던 과거로 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오로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오늘은 민심의 부름을 받은 당선자가 결정되는 날이다. 후보들의 심신을 극한까지 몰고 갔던 갈망과 간절함도 멈추는 날이다. 그들의 가슴속 간절함의 깊이와 고통을 짐작하기에, 그동안 힘든 나날을 기꺼이 견뎌 온 모든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조금 부치거나 시운을 타지 못해 불행히 낙선한 이들에게는, '비통한 심경을 추스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4년 후의 권도중래를 기약하는' 각오를 부탁한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경쟁자들을 제치고 다행히 목표를 이룬 당선자들에게는, '앞으로 4년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새롭게 다져 주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다가올 4년이, 정치를 시작하고 선거에 뛰어들게 만든 초심(初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간절함'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한국환
광주교대 외래교수

지방 정부, 소통의 리더십으로

라 세자 책봉 두 달 만에 왕위에 올라 스스로 자신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겸손함도 늘 잃지 않았다. 또한 백성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늘의 노함이 있을 것이라는 경외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사실 세종의 정치적 환경은 안정적이었다. 정적들이 많았던 부친 태종이 그 세력들을 평정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21세부터 32년간 많은 치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뤘 성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개인사는 불행했다. 즉위 4년만에 부모님과 사별로 정치적 고아가 되었고, 아들 문종은 불행사가 겹쳐 머느리를 연달아 맞이하는가 하면 손자들이 죽어가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40대에 앞이 잘 안 보였고 걷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수행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조선 시대의 최대 부흥기로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겸손과 백성 중심,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으로 국정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렇듯한 말이나 구호보다 오히려 작은 행함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이다. 선거 때의 농공행상으로 낙산산 인사, 셸프 세비 올리기, 비

판 받는 외의성 해의 연수, 의장직 나눠 먹기, 각종 불법과 편법 행위 등 썰물건을 볼 때마다 지방선거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비폭력으로 최고 통치자도 물러나게 했던 '촛불의 민심'을 목도했듯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행과 입법, 정책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초연결 시대다. 여러 네트워크로 각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대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걸쳐 리더십은 리더의 수준과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였으며 일 처리가 잘 된 배경에는 늘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다. 화려한 공약보다 살아온 삶의 과정을 살펴 맘 흘려 봉사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세기의 회담'이며 한반도 평화의 이슈인 '북미 정상 회담' '러시아 월드컵' 등이 선거와 겹치면서 그 열기가 가라앉았지만,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플라톤의 경고를 생각하며 오늘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기고



송석현
함평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장

투표 참여와 기권의 의미

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일부 또는 절반의 국민 뜻이 전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 구조 특성상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수록 정당 조직을 갖춘 구조, 즉 조직표를 가진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득표자가 대표자로 선택받을 수밖에 없지만 투표율이 70~80%일 때의 당선자와 40~50%일 때의 당선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대표자는 정당성과 대표성에서 취약성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고 발언권이 약해지는 것이다. 민의에 반하는, 즉 민의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권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중의 하나다. 정치가 부패했고 마음에 드는 정당도 없고 그 후보가 그 후보라는 등 기권의 사유는 많아 어느 정도 타당한

면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권과 투표의 차이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있어 천양지차다.

출마한 후보자 중에 서로 비교해서 더 나은 후보자를 선택해주는 것과 기권하는 것은 대표성과 정당성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또 그 여야가 한다고 거듭 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기권과 아무 생각 없는 기권이 갖는 효과는 차이가 없다. 모두 권력을 포기한 '무책임한 유권자'로 묶여 한통속으로 취급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주권 행사를 포기하면 정치는 더 나빠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주권자들이 자신의 신성한 주권을 포기하는 걸까. 선거의 의미를 잘 알지 못 한데서 오는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선거에서 국민의 관심은 '누가 이길 것인가'에 쏠린다.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당선될까?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이길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사이고 언론 보도의 주류를 이룬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언론이나 정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국민은 늘 구경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회이자 통로다. 그래서 선거를 국민정치 참여의 중앙 통로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함으로써 언제나 정당과 후보, 특히 당선자가 주인공이었으며 국민은 늘 구경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성한 주권 행사의 하나인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높은 투표율로 정당성과 대표성이 있는 후보를 우리의 대표자로 선택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북미 역사적 합의...한반도 평화 향한 첫걸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북미 양국은 비핵화와 더불어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유해 송환 등 4개 분야에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을 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는 담기지 않았다. 당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은 'CVID가 미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으나, 북한 측은 체제 보장 요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원래의 목표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한걸음을 떼어낸 것과 마음을 다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새롭게 다져 주기를 기대한다.

민선 7기 4년 당신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렸다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후보자들은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마감하고 투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 1227곳 등 전국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 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과 기초의 지역구 및 비례 대표 의원 등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광주 서구 갑과 영암·무안·신안 등 전국 열두 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유권자 한 명이 일급 명씩 선출하는 '1인 1표제'로 진행된다. 시·도지사부터 지방의원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이지만, 짝을 후보가 많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가면 자칫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후보자의 재산,

북한이 요구한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북미는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는 양국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종전선언 등 당초 높은 기대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향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나 김 위원장이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양국은 이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재 외교'로 이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 오랜 냉전시대의 종식을 기원한다.

병역, 전과, 납세 정보와 정책·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보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삶에 물론이고 지역 발전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다. 따라서 그 주인공인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과 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 내 자녀의 교육이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은 지역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전국 최상위권의 투표율을 기록해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 의식을 보여 주었다. 분투표가 진행되는 오늘 역시 모든 유권자들이 지역의 미래를 내 손으로 연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1953년 6·25 전쟁을 휴전(休戰)으로 마감한 뒤 65년 동안 적성국(敵性國)으로 지냈던 두 나라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진 것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기대했던 북한의 완전 비핵화(CVID)와 한반도 종전(終戰) 선언 등의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향후 북미 양국 간 신뢰를 통해 단계적인 비핵화와 종전 선언 계획이 발표돼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지향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과의 외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외국자본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뒤이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1995년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1985년 1인당 410달러이던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1000달러를 넘어 동남아시아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미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글로벌기업들이베

도이모이

트남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고, 이는 베트남의 경제발전 원동력이 된 것이다.

북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무기로 '세계 보안관'으로 불리는 미국과 직접 정상 회담에 나선 것도 이러한 경제체제 변화를 위한 북남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날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면서 중국과 베트남처럼 빠른 경제발전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 실 220-0536 서울 직사 02-773-9331	
사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